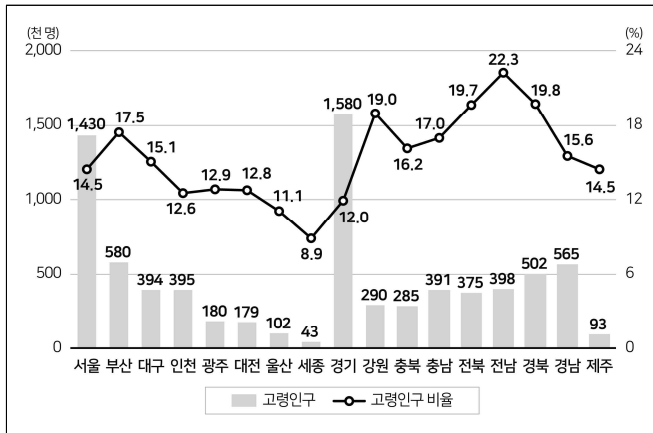


문 1. 다음 <그림>과 <표>는 지역별 고령인구 및 고령인구 비율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그림> 2019년 지역별 고령인구 및 고령인구 비율 현황



$$\text{고령인구 비율}(\%) = \frac{\text{고령인구}}{\text{인구}} \times 100$$

<표> 지역별 고령인구 및 고령인구 비율 전망
(단위: 천 명, %)

연도 지역	2025		2035		2045	
	고령인구	고령인구 비율	고령인구	고령인구 비율	고령인구	고령인구 비율
서울	1,862	19.9	2,540	28.4	2,980	35.3
부산	784	24.4	1,004	33.4	1,089	39.7
대구	494	21.1	691	31.2	784	38.4
인천	550	18.4	867	28.4	1,080	36.3
광주	261	18.0	377	27.3	452	35.2
대전	270	18.4	392	27.7	471	35.0
울산	193	17.3	302	28.2	352	35.6
세종	49	11.6	97	18.3	153	26.0
경기	2,379	17.0	3,792	26.2	4,783	33.8
강원	387	25.6	546	35.9	649	43.6
충북	357	21.6	529	31.4	646	39.1
충남	488	21.5	714	30.4	897	38.4
전북	441	25.2	587	34.7	683	42.5
전남	475	27.4	630	37.1	740	45.3
경북	673	25.7	922	36.1	1,064	43.9
경남	716	21.4	1,039	31.7	1,230	39.8
제주	132	18.5	208	26.9	275	34.9
전국	10,511	20.3	15,237	29.5	18,328	37.0

<보 기>

- ㄱ. 2019년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2025년 대비 2045년 고령인구 증가율도 가장 낮다.
 ㄴ. 2045년 고령인구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은 4곳이다.
 ㄷ. 2025년, 2035년, 2045년 고령인구 상위 세 개 지역은 모두 동일하다.
 ㄹ. 2045년 충북 인구는 전남 인구보다 많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 다음 <표>는 2020년 ‘갑’국의 가구당 보험료 및 보험급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보고서>를 근거로 A, B, D에 해당하는 질환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2020년 가구당 보험료 및 보험급여 현황

(단위: 원)

보험료 분위	구분 보험료	전체질환 보험급여 (보험혜택 비율)	4대 질환별 보험급여 (보험혜택 비율)			
			A 질환	B 질환	C 질환	D 질환
전체	99,934	168,725 (1.7)	337,505 (3.4)	750,101 (7.5)	729,544 (7.3)	390,637 (3.9)
1분위	25,366	128,431 (5.1)	327,223 (12.9)	726,724 (28.6)	729,830 (28.8)	424,764 (16.7)
5분위	231,293	248,741 (1.1)	322,072 (1.4)	750,167 (3.2)	713,160 (3.1)	377,568 (1.6)

$$\text{보험혜택 비율} = \frac{\text{보험급여}}{\text{보험료}}$$

2) 4대 질환은 뇌혈관, 심장, 암, 희귀 질환임.

<보고서>

2020년 전체 가구당 보험료는 10만 원 이하였지만 전체 질환의 가구당 보험급여는 16만 원 이상으로 전체질환 보험혜택 비율은 1.7로 나타났다.

4대 질환 중 전체 보험혜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질환은 심장 질환이었다. 뇌혈관, 심장, 암 질환의 1분위 보험혜택 비율은 각각 5분위의 10배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뇌혈관, 심장, 희귀 질환의 1분위 가구당 보험급여는 각각 전체질환의 1분위 가구당 보험급여의 3배 이상이었다.

- | | A | B | D |
|-------|----|----|---|
| ① 뇌혈관 | 심장 | 희귀 | |
| ② 뇌혈관 | 암 | 희귀 | |
| ③ 암 | 심장 | 희귀 | |
| ④ 암 | 희귀 | 심장 | |
| ⑤ 희귀 | 심장 | 암 | |

문 3. 다음 <표>는 2013 ~ 2020년 ‘갑’국 재정지출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전체 재정지출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구분	금액	GDP 대비 비율
2013		487,215	34.9
2014		466,487	31.0
2015		504,426	32.4
2016		527,335	32.7
2017		522,381	31.8
2018		545,088	32.0
2019		589,175	32.3
2020		614,130	32.3

<표 2> 전체 재정지출 중 5대 분야 재정지출 비중
(단위: %)

연도 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교육	15.5	15.8	15.4	15.9	16.3	16.3	16.2	16.1
보건	10.3	11.9	11.4	11.4	12.2	12.5	12.8	13.2
국방	7.5	7.7	7.6	7.5	7.8	7.8	7.7	7.6
안전	3.6	3.7	3.6	3.8	4.0	4.0	4.1	4.2
환경	3.1	2.5	2.4	2.4	2.4	2.5	2.4	2.4

- 2015 ~ 2020년 환경 분야 재정지출 금액은 매년 증가하였다.
- 2020년 교육 분야 재정지출 금액은 2013년 안전 분야 재정지출 금액의 4배 이상이다.
- 2020년 GDP는 2013년 대비 30 % 이상 증가하였다.
- 2016년 이후 GDP 대비 보건 분야 재정지출 비율은 매년 증가하였다.
- 5대 분야 재정지출 금액의 합은 매년 전체 재정지출 금액의 35 % 이상이다.

문 4. 다음 <표>는 2020년 12월 ‘갑’공장 A ~ C 제품의 생산량과 불량품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A ~ C 제품의 생산량과 불량품수
(단위: 개)

구분	제품	A	B	C	전체
생산량		2,000	3,000	5,000	10,000
불량품수		200	300	400	900

$$\ast 1) \text{ 불량률}(\%) = \frac{\text{불량품수}}{\text{생산량}} \times 100$$

$$2) \text{ 수율}(\%) = \frac{\text{생산량} - \text{불량품수}}{\text{생산량}} \times 100$$

- 불량률이 가장 낮은 제품은 C이다.
- 제품별 생산량 변동은 없고 불량품수가 제품별로 100 %씩 증가한다면 전체 수율은 82 %이다.
- 제품별 불량률 변동은 없고 생산량이 제품별로 100 %씩 증가한다면 전체 수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 제품별 생산량 변동은 없고 불량품수가 제품별로 100개씩 증가한다면 전체 수율은 88 %이다.
- 제품별 불량률 변동은 없고 생산량이 제품별로 1,000개씩 증가한다면 전체 수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문 5. 다음 <표>는 ‘갑’국의 2019년과 2020년의 대학 교원 유형별 강의 담당학점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교원 유형별 강의 담당학점 현황
(단위: 학점, %)

구분		연도		2020년			2019년		
		교원 유형		전임 교원	비전임 교원	강사	전임 교원	비전임 교원	강사
전체 (196개교)	담당 학점			479,876	239,394	152,898	476,551	225,955	121,265
	비율			66.7	33.3	21.3	67.8	32.2	17.3
설립주체	국공립 (40개교)	담당 학점		108,237	62,934	47,504	107,793	59,980	42,824
		비율		63.2	36.8	27.8	64.2	35.8	25.5
소제지	사립 (156개교)	담당 학점		371,639	176,460	105,394	368,758	165,975	78,441
		비율		67.8	32.2	19.2	69.0	31.0	14.7
수도권 (73개교)	담당 학점			173,383	106,403	64,019	171,439	101,864	50,696
	비율			62.0	38.0	22.9	62.7	37.3	18.5
비수도권 (123개교)	담당 학점			306,493	132,991	88,879	305,112	124,091	70,569
	비율			69.7	30.3	20.2	71.1	28.9	16.4

$$\ast \text{ 비율}(\%) = \frac{\text{교원 유형별 담당학점}}{\text{전임교원 담당학점} + \text{비전임교원 담당학점}} \times 100$$

<보 기>

- 2020년 전체 대학의 전임교원 담당학점 비율은 비전임 교원 담당학점 비율의 2배 이상이다.
- 2020년 전체 대학의 전임교원 담당학점은 전년 대비 1.1 % 줄어 들었다.
- 사립대학의 경우, 비전임교원 담당학점 중 강사 담당학점 비중의 2019년과 2020년간 차이는 10%p 미만이다.
- 2019년 대비 2020년에 증가한 비전임교원 담당학점은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의 2배 미만이다.

- ㄱ, ㄴ
- ㄱ, ㄷ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문 6. 다음 <보고서>는 세계 전기차 현황과 전망에 대한 자료이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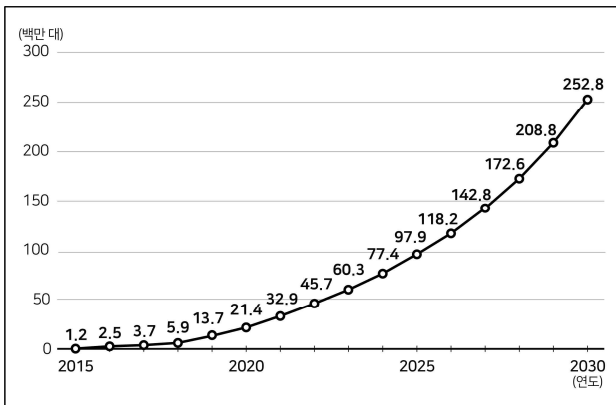
—<보고서>—

세계 각국이 내연기관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친환경차 도입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이어가면서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전기차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2015년 1.2백만 대에 머물던 세계 전기차 누적 생산량이 2030년에는 2억 5천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에 대한 전망도 희망적이다. 2020년 5백만 대에 못 미치던 전 세계 전기차 연간 판매량이 2030년에는 2천만 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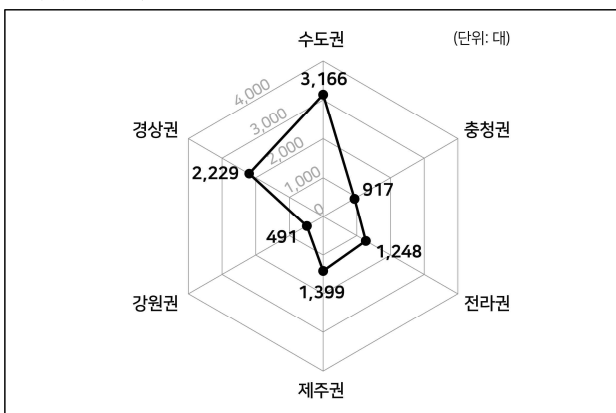
국내 역시 빠른 속도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차보급로드맵에 따르면 2015년 산업수요 대비 비중이 0.2%였던 전기차는 2019년에는 2.4%까지 비중이 늘었고, 2025년에는 산업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4.4%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전기차가 빠른 기간 내에 시장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보조금 지원과 전기 충전 인프라 확충의 영향이 크다. 현재 전기차는 동급의 내연기관차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보조금을 받아 구매하면 실구매가가 낮아진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는 2019년 3월 기준, 전기차 구매 시 지역별로 대당 최소 4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충전 인프라의 확충은 전기차 보급 확대의 핵심적인 요소로, 국내 전기 충전 인프라는 2019년 3월 기준 전국 주유소 대비 80%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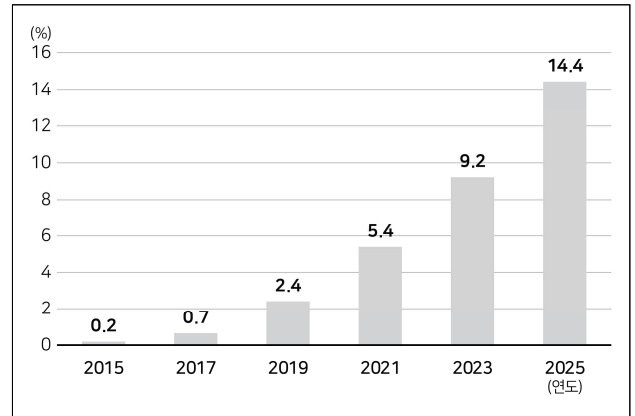
① 세계 전기차 누적 생산량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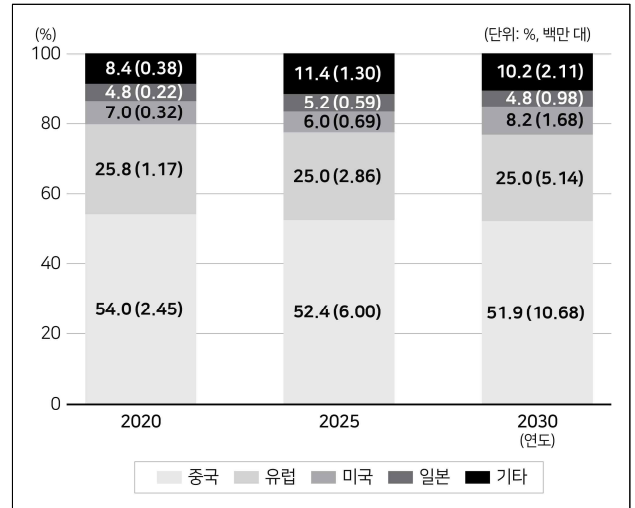
② 우리나라 지역별 전기차 공용 충전기 현황(2020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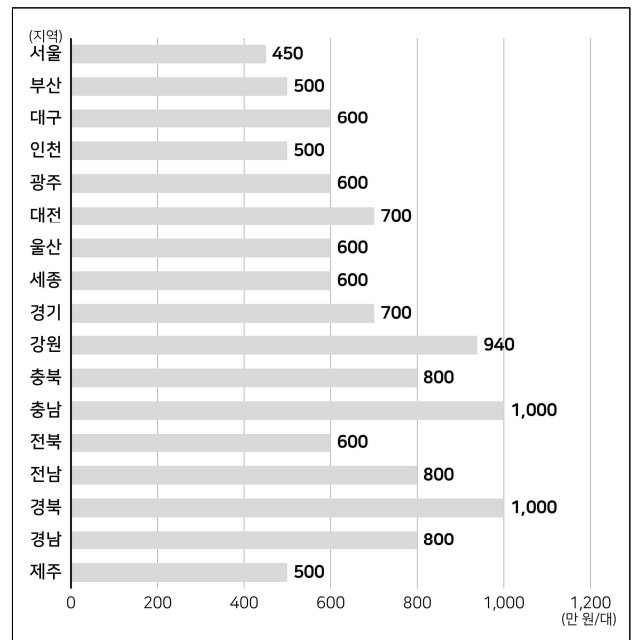
③ 우리나라 산업수요 대비 전기차 비중의 현황과 전망



④ 세계 전기차 연간 판매량의 국가별 비중 현황과 전망



⑤ 우리나라 지역별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현황(2019년 3월)



문 7. 다음 <표>는 ‘갑’국의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과목별 접수인원 및 경쟁률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표>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과목별 접수 현황 (단위: 명)

과목 \ 구분	모집정원	접수인원	경쟁률	2020학년도 경쟁률
국어	383	6,493	16.95	19.55
영어	()	4,235	15.92	19.10
중국어	31	819	26.42	23.98
도덕윤리	297	1,396	4.70	()
일반사회	230	1,557	6.77	7.06
지리	150	1,047	()	6.83
역사	229	3,268	14.27	15.22
수학	()	4,452	12.54	14.20
물리	133	()	7.46	7.10
화학	142	1,122	7.90	8.10
생물	159	1,535	()	11.14
지구과학	115	795	6.91	7.25
가정	141	1,048	7.43	8.03
기술	144	424	()	2.65
정보컴퓨터	145	()	6.26	5.88
음악	193	2,574	()	11.33
미술	209	1,998	9.56	10.62
체육	425	4,046	9.52	9.46

※ 경쟁률 = $\frac{\text{접수인원}}{\text{모집정원}}$

<보 기>

- ㄱ. 2021학년도 경쟁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과목 수는 상승한 과목 수보다 많다.
- ㄴ. 2021학년도 경쟁률 상위 3과목과 접수인원 상위 3과목은 일치한다.
- ㄷ. 2021학년도 경쟁률이 5.0 미만인 과목의 모집정원은 각각 150명 이상이다.
- ㄹ. 2021학년도 과목별 모집정원은 수학이 영어보다 많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문 8. 다음 <표>는 ‘조선왕조실록’과 ‘호구총수’에 따른 17세기 후반 현종에서 숙종 사이 5개 조사연도의 호구(戶口)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7세기 후반 호구(戶口) 자료 (단위: 호, 명)

조사연도 \ 구분	조선왕조실록		호구총수	
	호(戶)	구(口)	호(戶)	구(口)
현종 10년	1,342,274	5,164,524	1,313,652	5,018,744
현종 13년	1,176,917	4,695,611	1,205,866	4,720,815
숙종 원년	1,234,512	4,703,505	1,250,298	4,725,704
숙종 19년	1,546,474	7,188,574	1,547,237	7,045,115
숙종 25년	1,293,083	5,772,300	1,333,330	5,774,739

<보 기>

- ㄱ. ‘조선왕조실록’, ‘호구총수’에 따른 호(戶)당 구(口)는 모든 조사연도마다 각각 3명 이상이다.
- ㄴ. 현종 13년 이후, 직전 조사연도 대비 호(戶) 증가율이 가장 큰 조사연도는 ‘조선왕조실록’과 ‘호구총수’가 같다.
- ㄷ. 숙종 원년 대비 숙종 19년 ‘조선왕조실록’에 따른 구(口) 증가율은 ‘호구총수’에 따른 구(口) 증가율보다 작다.
- ㄹ. ‘조선왕조실록’과 ‘호구총수’ 간 호(戶)의 차이가 가장 큰 조사연도는 구(口)의 차이도 가장 크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9. 다음 <표>는 작가 A의 SNS 팔로워 25,000명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팔로워의 성별 및 연령대 비율 (단위: %)

연령대 \ 성별	24세 이하	25 ~ 34세	35 ~ 44세	45 ~ 54세	55 ~ 64세	65세 이상	합
여성	12.4	11.6	8.1	4.4	1.6	1.1	39.2
남성	19.6	17.4	9.9	7.6	5.4	0.9	60.8
계	32.0	29.0	18.0	12.0	7.0	2.0	100.0

<표 2> 팔로워의 거주지역별 수 (단위: 명)

거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전체
팔로워	13,226	2,147	1,989	1,839	1,171	1,341	()	()	25,000

- ① 34세 이하 팔로워는 45세 이상 팔로워의 3배 이상이다.
- ② 서울에 거주하는 34세 이하 팔로워는 3,000명 이상이다.
- ③ 서울에 거주하는 팔로워는 다른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팔로워의 합보다 적다.
- ④ 팔로워 중 10% 이상이 기타 지역에 거주하면, 울산에 거주하는 팔로워는 750명 이하이다.
- ⑤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팔로워 수는 변동이 없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팔로워만 각각 100명씩 증가하면, 광주에 거주하는 팔로워는 전체 팔로워의 5% 이상이 된다.

문 10. 다음 <표>는 성인 A ~ F의 일일 영양소 섭취량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근거로 <에너지 섭취 권장기준>에 부합하는 남성과 여성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성인 A ~ F의 일일 영양소 섭취량
(단위: g)

성인 \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A	375	50	60
B	500	50	60
C	300	75	50
D	350	120	70
E	400	100	70
F	200	80	90

<조 건>

- 에너지 섭취량은 탄수화물 1g당 4kcal, 단백질 1g당 4kcal, 지방 1g당 9kcal이다.
- 에너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만 섭취하며, 섭취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는 없다.
- <에너지 섭취 권장기준>에 부합하는 남성과 여성은 1명씩 존재한다.

<에너지 섭취 권장기준>

- 일일 총에너지 섭취량 중 55 ~ 65%를 탄수화물로, 7 ~ 20%를 단백질로, 15 ~ 30%를 지방으로 섭취한다.
- 일일 에너지 섭취 권장량은 성인 남성이 2,600 ~ 2,800kcal이며, 성인 여성이 1,900 ~ 2,100kcal이다.

	남성	여성
①	A	F
②	B	C
③	B	F
④	E	C
⑤	E	F

문 11. 다음 <표>는 2024년 예상 매출액 상위 10개 제약사의 2018년, 2024년 매출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표> 2024년 매출액 상위 10개 제약사의 2018년, 2024년 매출액
(단위: 억 달러)

2024년 기준 매출액 순위	기업명	2024년	2018년	2018년 대비 2024년 매출액 순위변화
1	Pfizer	512	453	변화없음
2	Novartis	498	435	1단계 상승
3	Roche	467	446	1단계 하락
4	J&J	458	388	변화없음
5	Merck	425	374	변화없음
6	Sanofi	407	351	변화없음
7	GSK	387	306	5단계 상승
8	AbbVie	350	321	2단계 상승
9	Takeda	323	174	7단계 상승
10	AstraZeneca	322	207	4단계 상승
매출액 소계		4,149	3,455	
전체 제약사 총매출액		11,809	8,277	

※ 2024년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임.

<보 기>

- ㄱ. 2018년 매출액 상위 10개 제약사의 2018년 매출액 합은 3,700억 달러 이상이다.
- ㄴ. 2024년 매출액 상위 10개 제약사 중, 2018년 대비 2024년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Takeda이고 가장 적게 증가한 기업은 Roche이다.
- ㄷ. 2024년 매출액 상위 10개 제약사의 매출액 합이 전체 제약사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이 2018년 보다 크다.
- ㄹ. 2024년 매출액 상위 10개 제약사 중, 2018년 대비 2024년 매출액 증가율이 60% 이상인 기업은 2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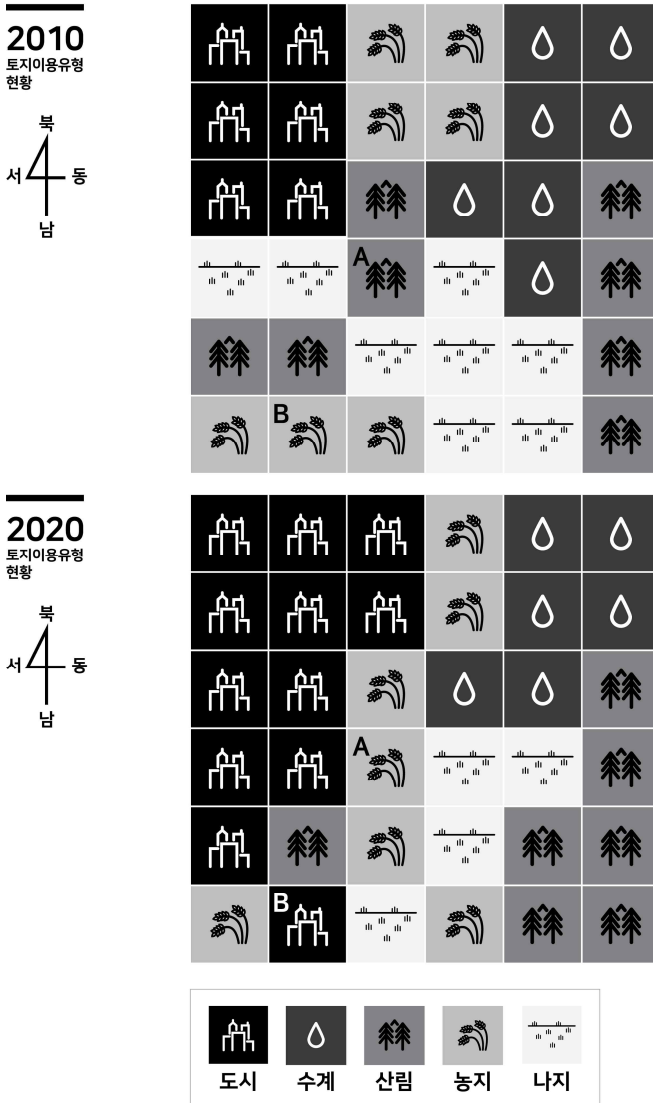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 문 12. 다음 <정보>와 <그림>은 ‘갑’국의 2010년과 2020년 구획별 토지이용유형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 보>—

- ‘갑’국은 36개의 정사각형 구획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구획의 토지면적은 동일함.
- ‘갑’국 각 구획의 토지이용유형은 ‘도시’, ‘산림’, ‘농지’, ‘수계’, ‘나지’로만 구성됨.

<그림> 2010년, 2020년 구획별 토지이용유형 현황



- ① 2010년 대비 2020년 토지이용유형별 토지면적 증감량은 가장 큰 유형이 두 번째로 큰 유형의 1.5배 이상이다.
- ② 2010년 ‘산림’ 구획 중 2020년 ‘산림’이 아닌 구획의 토지면적은 2010년 ‘농지’가 아닌 구획 중 2020년 ‘농지’인 구획의 토지면적보다 작다.
- ③ 2010년 ‘농지’ 구획의 개수는 2010년 ‘산림’이 아닌 구획 중 2020년 ‘산림’인 구획의 개수와 같다.
- ④ 2010년 전체 ‘나지’ 구획 중 일부 구획은 2020년 ‘도시’, ‘농지’, ‘산림’ 구획이 되었다.
- ⑤ 2021년 A 구획과 B 구획이 각각 ‘도시’, ‘나지’이고 나머지 구획이 2020년의 토지이용유형과 동일하다면, 2020년과 2021년의 ‘도시’ 구획의 토지면적은 동일하다.

- 문 13. 다음 <표>는 A, B 지역의 2020년 6 ~ 10월 돼지열병 발생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A 지역의 돼지열병 발생 현황

(단위: 두, %, ‰)

구분 \ 월	6	7	8	9	10	전체
발병	()	()	1,600	2,400	3,000	()
폐사	20	20	100	80	180	400
폐사율	10.0	2.5	6.3	3.3	6.0	()
발병률	1.0	()	()	()	15.0	()

<표 2> B 지역의 돼지열병 발생 현황

(단위: 두, %, ‰)

구분 \ 월	6	7	8	9	10	전체
발병	600	800	2,400	1,400	600	5,800
폐사	()	50	()	20	40	()
폐사율	5.0	6.3	2.5	1.4	6.7	()
발병률	6.0	()	()	()	6.0	()

$$\text{※ 1) (해당월) 폐사율(\%) = \frac{(\text{해당월) 폐사 두수}}{(\text{해당월) 발병 두수}} \times 100$$

$$\text{2) (해당월) 발병률(\%) = \frac{(\text{해당월) 발병 두수}}{\text{사육 두수}} \times 1,000$$

3) 사육 두수는 2020년 6월 두수임.

- ① 사육 두수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많다.
- ② 전체 폐사 두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3배 이상이다.
- ③ 전체 폐사율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높다.
- ④ B 지역의 폐사 두수가 가장 적은 월에 A 지역의 발병 두수는 전월 대비 40 % 증가했다.
- ⑤ 전월 대비 11월 발병 두수가 A 지역은 100 %, B 지역은 400 % 증가하면, A, B 지역의 11월 발병률은 같다.

- 문 14. 다음 <표>는 2019년 아세안 3개국 7개 지역별 외국투자기업의 지출 항목별 단가 및 보조금 지급기준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에 근거하여 7개 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갑’기업의 월간 순지출액이 가장 작은 지역과 가장 큰 지역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1> 지역별 외국투자기업의 지출 항목별 단가
(단위: 달러)

국가	지역	항목 (1인당 월지급액)	급여 (100kWh당 요금)	전력 사용료 (100kWh당 요금)	운송비 (1회당 운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10	7	2,300	
	바탐	240	7	3,500	
베트남	하노이	220	19	3,400	
	호치민	240	10	2,300	
	다낭	200	19	4,000	
필리핀	마닐라	230	12	2,300	
	세부	220	21	3,500	

<표 2> 국가별 외국투자기업의 지출 항목별 보조금 지급기준

국가	항목	급여	전력 사용료	운송비
인도네시아	1인당 월 50달러	보조금 없음	1회당 50% 보조	
베트남	1인당 월 30달러	100kWh당 5달러	보조금 없음	
필리핀	보조금 없음	100kWh당 10달러	1회당 50% 보조	

<정 보>

- 지역별 외국투자기업의 월간 순지출액은 각 지역에서 월간 발생하는 총지출액에서 해당 국가의 월간 총보조금을 뺀 금액임.
- 지출과 보조금 항목은 급여, 전력 사용료, 운송비로만 구성됨.
- ‘갑’기업은 7개 지역에서 각각 10명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월간 전력 사용량은 각각 1만 kWh이며, 월간 4회 운송을 각각 시행함.

가장 작은 지역 가장 큰 지역

- | | | |
|---|------|-----|
| ① | 마닐라 | 다낭 |
| ② | 마닐라 | 하노이 |
| ③ | 자카르타 | 다낭 |
| ④ | 자카르타 | 세부 |
| ⑤ | 자카르타 | 하노이 |

- 문 15. 다음 <표>는 어느 학술지의 우수논문 선정대상 논문 I ~ V에 대한 심사자 ‘갑’, ‘을’, ‘병’의 선호순위를 나열한 것이다. <표>와 <규칙>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심사자별 논문 선호순위

심사자 \ 논문	I	II	III	IV	V
갑	1	2	3	4	5
을	1	4	2	5	3
병	5	3	1	4	2

※ 선호순위는 1 ~ 5의 숫자로 나타내며 숫자가 낮을수록 선호가 더 높음.

<규 칙>

- 평가점수 산정방식
 - 가. [(선호순위가 1인 심사자 수 × 2) + (선호순위가 2인 심사자 수 × 1)]의 값이 가장 큰 논문은 1점, 그 외의 논문은 2점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나. 논문별 선호순위의 중앙값이 가장 작은 논문은 1점, 그 외의 논문은 2점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다. 논문별 선호순위의 합이 가장 작은 논문은 1점, 그 외의 논문은 2점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우수논문 선정방식
 - A. 평가점수 산정방식 가, 나, 다 중 한 가지만을 활용하여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한다. 단, 각 산정방식이 활용될 확률은 동일하다.
 - B. 평가점수 산정방식 가, 나, 다에서 도출된 평가점수의 합이 가장 낮은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한다.
 - C. 평가점수 산정방식 가, 나, 다에서 도출된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각각 $\frac{1}{6}$, $\frac{1}{3}$, $\frac{1}{2}$ 을 적용한 점수의 합이 가장 낮은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한다.

※ 1) 중앙값은 모든 관측치를 크기 순서로 나열하였을 때, 중앙에 오는 값을 의미함. 예를 들어, 선호순위가 2, 3, 4인 경우 3이 중앙값이며, 선호순위가 2, 2, 4인 경우 2가 중앙값임.

2) 점수의 합이 가장 낮은 논문이 2편 이상이면, 심사자 ‘병’의 선호가 더 높은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함.

<보 기>

- ㄱ. 선정방식 A에 따르면 우수논문으로 선정될 확률이 가장 높은 논문은 I이다.
- ㄴ. 선정방식 B에 따르면 우수논문은 II이다.
- ㄷ. 선정방식 C에 따르면 우수논문은 III이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다음 <설명>과 <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행정구역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 16. ~ 문 17.]

— <설 명> —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분된다.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로 구분된다.
- 특별시는 구를, 광역시는 구와 군을, 도는 시와 군을 하위 행정구역으로 둔다. 단, 도의 하위 행정구역인 시에는 하위 행정구역으로 구를 둘 수 있으나, 이 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자치도는 하위 행정구역으로 시를 둘 수 있으나, 이 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와 구는 읍, 면, 동을, 군은 읍, 면을 하위 행정구역으로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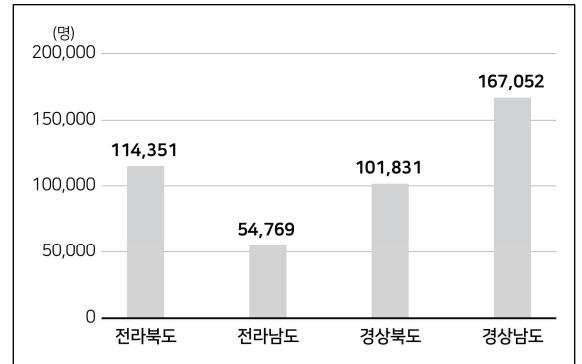
<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행정구역 현황
(단위: 개, km², 세대, 명)

행정구역	시	군	구	면적	세대수	공무원수	인구	여성
서울특별시	0	0	25	605.24	4,327,605	34,881	9,729,107	4,985,048
부산광역시	0	1	15	770.02	1,497,908	11,591	3,413,841	1,738,424
대구광역시	0	1	7	883.49	1,031,251	7,266	2,438,031	1,232,745
인천광역시	0	2	8	1,063.26	1,238,641	9,031	2,957,026	1,474,777
광주광역시	0	0	5	501.14	616,485	4,912	1,456,468	735,728
대전광역시	0	0	5	539.63	635,343	4,174	1,474,870	738,263
울산광역시	0	1	4	1,062.04	468,659	3,602	1,148,019	558,307
세종특별자치시	0	0	0	464.95	135,408	2,164	340,575	170,730
경기도	28	3	17	10,192.52	5,468,920	45,657	13,239,666	6,579,671
강원도	7	11	0	16,875.28	719,524	14,144	1,541,502	766,116
충청북도	3	8	4	7,406.81	722,123	10,748	1,600,007	789,623
충청남도	8	7	2	8,245.55	959,255	14,344	2,123,709	1,041,771
전라북도	6	8	2	8,069.13	816,191	13,901	1,818,917	914,807
전라남도	5	17	0	12,345.20	872,628	17,874	1,868,745	931,071
경상북도	10	13	2	19,033.34	1,227,548	21,619	2,665,836	1,323,799
경상남도	8	10	5	10,540.39	1,450,822	20,548	3,362,553	1,670,521
제주특별자치도	2	0	0	1,850.23	293,155	2,854	670,989	333,644
계	77	82	101	100,448.22	22,481,466	239,310	51,849,861	25,985,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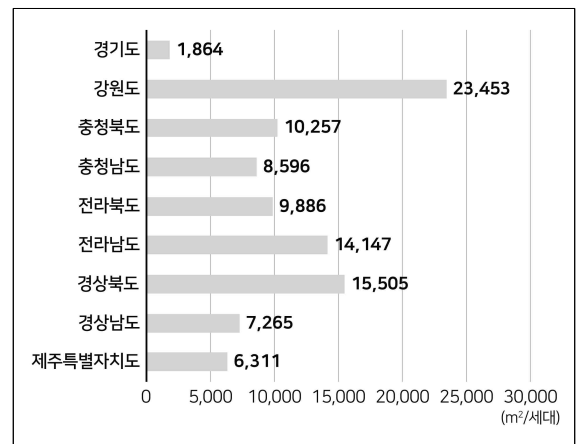
문 16. 위 <설명>과 <표>를 이용하여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보기>의 그래프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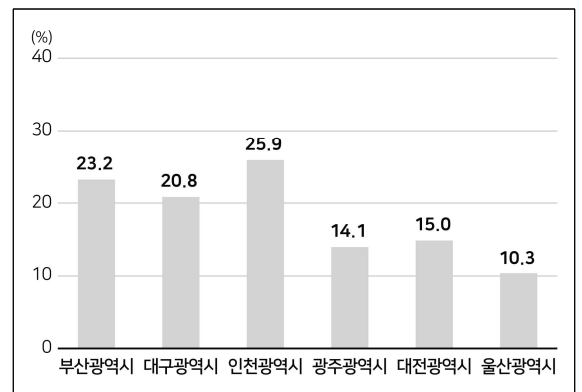
ㄱ. 남부지역 4개 도의 군당 거주 여성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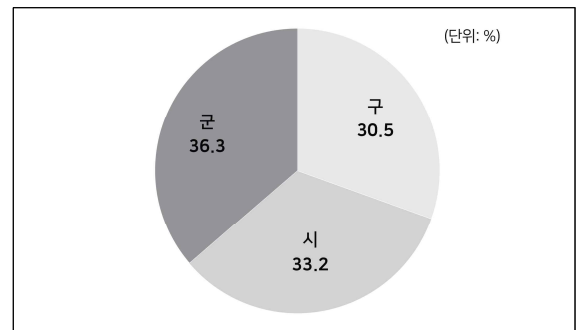
ㄴ. 도와 특별자치도의 세대당 면적



ㄷ. 서울특별시 공무원수 대비 6대 광역시 공무원수의 비율



ㄹ.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성 비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문 17. 위 <설명>, <표>와 다음 <우리나라 행정구역 변천사>를 이용하여 2012년 6월 30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하위 행정구역인 시, 군, 구의 수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우리나라 행정구역 변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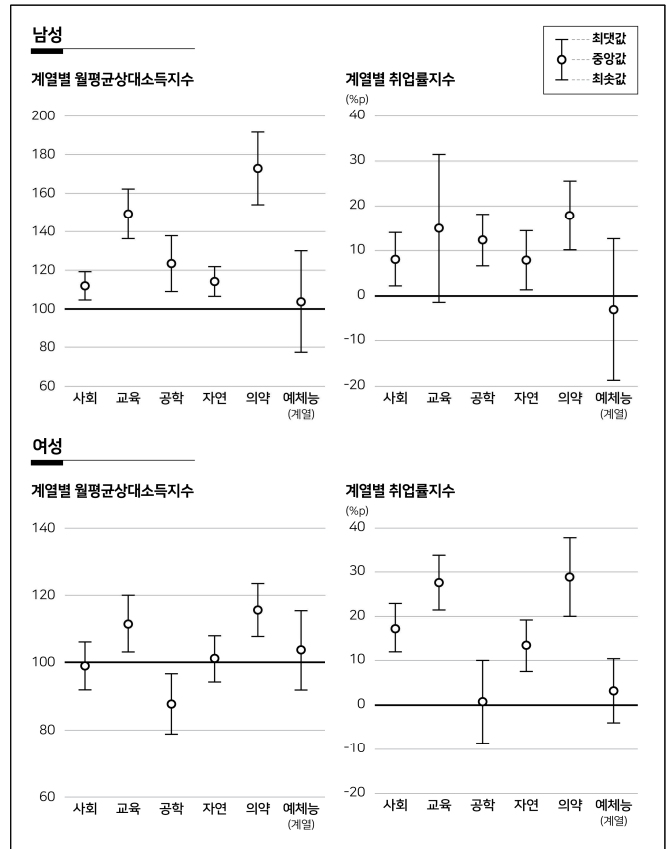
- 2012년 1월 1일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하였다.
-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이로 인하여 충청남도 연기군이 폐지되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었다.
- 2013년 9월 23일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되었다.
- 2014년 7월 1일 청원군은 청주시와의 통합으로 폐지되고, 청주시에 청원구, 서원구가 새로 설치되어 구가 4개가 되었다.
- 2016년 7월 4일 부천시 3개 구가 폐지되었다.

※ 2012년 1월 1일 이후 시, 군, 구의 설치, 승격, 폐지를 모두 포함함.

	시	군	구
①	74	86	100
②	74	88	100
③	76	85	102
④	76	86	102
⑤	78	83	100

문 18. 다음 <그림>은 2020년 A 대학 6개 계열의 학과별 남·여 졸업생 월평균소득, 취업률을 인문계열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그림> 계열별 월평균상대소득지수와 취업률지수



- ※ 1) 월평균상대소득지수는 학과 졸업생의 월평균소득 값을 인문계열의 월평균소득 기준(100)으로 환산한 값임.
- 2) 취업률지수(%p)는 학과의 취업률에서 인문계열 평균 취업률을 뺀 값임.
- 3) 계열별 월평균상대소득(취업률)지수는 해당계열 소속 각 학과의 월평균상대소득(취업률)지수 가운데 최댓값, 중앙값, 최솟값을 그래프로 표시함.

— <보 기> —

- ㄱ. 인문계열을 제외하고 계열별 월평균상대소득지수의 최댓값이 네 번째로 큰 계열은 남성과 여성이 같다.
- ㄴ. 교육계열 월평균상대소득지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크다.
- ㄷ. 취업률이 인문계열 평균 취업률과 차이가 가장 큰 학과가 소속된 계열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
- ㄹ. 취업률이 인문계열 평균 취업률보다 낮은 학과가 소속된 계열의 개수는 남성과 여성이 같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 19. 다음 <표>는 2019년 금융소득 분위별 가구당 자산규모와 소득규모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표 1> 금융소득 분위별 가구당 자산규모
(단위: 만 원)

자산 구분	금융소득 분위 가구 분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산 총액	전체	34,483	42,390	53,229	68,050	144,361
	노인	26,938	32,867	38,883	55,810	147,785
순 자산액	전체	29,376	37,640	47,187	63,197	133,050
	노인	23,158	29,836	35,687	53,188	140,667
저축액	전체	6,095	8,662	11,849	18,936	48,639
	노인	2,875	4,802	6,084	11,855	48,311

<표 2> 금융소득 분위별 가구당 소득규모
(단위: 만 원)

소득 구분	금융소득 분위 가구 분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경상 소득	전체	4,115	4,911	5,935	6,509	9,969
	노인	1,982	2,404	2,501	3,302	6,525
근로 소득	전체	2,333	2,715	3,468	3,762	5,382
	노인	336	539	481	615	1,552
사업 소득	전체	1,039	1,388	1,509	1,334	1,968
	노인	563	688	509	772	1,581

※ 금융소득 분위는 금융소득이 있는 가구의 금융소득을 1~5분위로 구분하며, 숫자가 클수록 금융소득 분위가 높음.

<보고서>

2019년 금융소득 분위별 가구당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금융소득 5분위 가구를 제외할 경우 각 금융소득 분위에서 노인가구당 자산총액은 전체가구당 자산총액보다 낮았다. 가구당 자산총액과 순자산액은 전체가구와 노인가구 모두에서 금융소득 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각각 증가하였다. 금융자산 역시 금융소득과 함께 증가하였는데 특히 전체가구 중 금융소득 1분위 가구당 금융자산은 자산총액의 약 3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총액에 비해 금융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축액의 경우 노인가구 중 금융소득 1분위 가구당 저축액은 2,875만 원이고, 2분위 가구당 저축액은 4,80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소득 분위별로 구한 가구당 금융소득과 유사한 비율로 증가한 것이다.

2019년 금융소득 분위별 가구당 소득규모를 살펴보면, 금융소득 5분위를 제외한 가구당 경상소득은 각 금융소득 분위에서 노인가구가 전체가구 대비 60%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활동의 비중이 감소하므로 자산총액과는 다르게 전체가구의 경상소득과 노인가구의 경상소득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노인가구에서 금융소득 2분위보다 3분위의 가구당 근로소득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소득 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여준 가구당 금융자산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주었다.

<보 기>

- ㄱ. 2019년 금융소득 없는 가구의 자산, 소득
 ㄴ. 2019년 금융소득 분위별 가구당 금융자산
 ㄷ. 2019년 경상소득 분위별 가구당 금융소득
 ㄹ. 2019년 금융소득 분위별 가구당 금융소득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0. 다음 <표>는 2020년 1~4월 애니메이션을 등록한 회사의 애니메이션 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월별 애니메이션 등록 회사와 유형별 애니메이션 등록 현황
(단위: 개사, 편)

월	회사	유형			
		국내단독	국내합작	해외합작	전체
1	13	6	6	2	14
2	6	4	0	2	6
3	()	6	4	1	11
4	7	3	5	0	8

※ 애니메이션 1편당 등록 회사는 1개사임.

<표 2> 1~4월 동안 2편 이상의 애니메이션을 등록한 회사의 월별 애니메이션 등록 현황
(단위: 편)

회사	유형	월			
		1	2	3	4
아트팩토리	국내단독	0	1	1	0
꼬꼬지	국내단독	1	1	0	0
코닉스	국내단독	0	0	1	1
제이와이제이	국내합작	1	0	0	1
유이락	국내단독	2	0	3	1
한스튜디오	국내합작	1	0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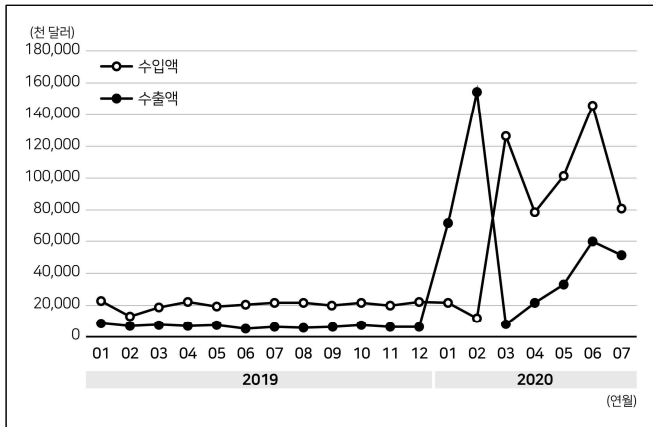
<보 기>

- ㄱ. 1~4월 동안 1편의 애니메이션만 등록한 회사는 20개사 이상이다.
 ㄴ. 1월에 국내단독 유형인 애니메이션을 등록한 회사는 5개사이다.
 ㄷ. 3월에 애니메이션을 등록한 회사는 9개사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 21. 다음 <그림>과 <표>는 한국의 방진용 마스크 수출·수입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그림> 한국의 방진용 마스크 수출액·수입액 변화



<표 1> 한국의 방진용 마스크 수출액 상위 5개국
(단위: 천 달러)

순위	구분	2019년 1 ~ 7월		2020년 1 ~ 7월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1		일본	11,000	중국	90,000
2		베트남	5,000	미국	72,000
3		미국	4,900	일본	37,000
4		중국	4,500	홍콩	27,000
5		멕시코	3,000	아일랜드	17,000

<표 2> 한국의 방진용 마스크 수입액 상위 5개국
(단위: 천 달러)

순위	구분	2019년 1 ~ 7월		2020년 1 ~ 7월	
		국가	수입액	국가	수입액
1		중국	93,000	중국	490,000
2		베트남	18,000	베트남	35,000
3		일본	4,900	미국	6,300
4		대만	2,850	일본	5,600
5		미국	2,810	싱가포르	4,600

<보고서>

한국의 방진용 마스크 수출·수입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한국의 월별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작은 상황이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방진용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면서 2020년 1월과 2월에는 한국의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2020년 2월에는 수출액이 수입액의 7배 이상이 되었다. 한국 정부에서 방진용 마스크 공급을 조절하고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수출이 급감하였고,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 ~ 7월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가별 수출액 변화가 나타났다. ㉡ 전년 동기간 대비 2020년 1 ~ 7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방진용 마스크 수출액 증가율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방진용 마스크 수출액 증가율보다 크다.

한국의 방진용 마스크 수입은 2020년 1, 2월까지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다가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진 2020년 3월부터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월별 수입액 변화를 살펴보면, 방진용 마스크 수입액은 2020년 3월에 전월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 ~ 7월 수입액 상위 5개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으로부터의 방진용 마스크 수입액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 전년 동기간 대비 2020년 1 ~ 7월 한국이 베트남에서 수입한 방진용 마스크 수입액 증가율은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방진용 마스크 수입액 증가율보다 크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문 22. 다음 <표>는 우리나라 7개 도시의 공원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바탕으로 ‘가’ ~ ‘라’ 도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우리나라 7개 도시의 공원 현황

구분	개소	결정면적 (백만 m ²)	조성면적 (백만 m ²)	활용률 (%)	1인당 결정면적(m ²)
전국	20,389	1,020.1	412.0	40.4	22.0
서울	2,106	143.4	86.4	60.3	14.1
(가)	960	69.7	29.0	41.6	25.1
(나)	586	19.6	8.7	44.2	13.4
부산	904	54.0	17.3	29.3	16.7
(다)	619	22.2	12.3	49.6	15.5
대구	755	24.6	11.2	45.2	9.8
(라)	546	35.9	11.9	33.2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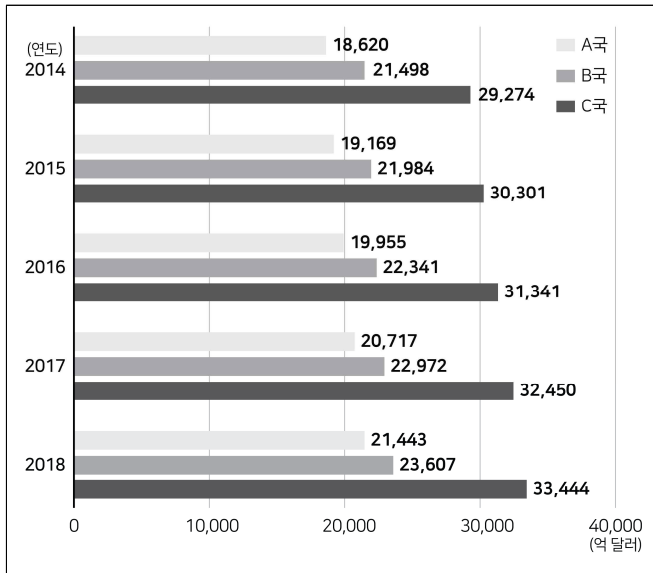
<조 건>

- 결정면적이 전국 결정면적의 3% 미만인 도시는 광주, 대전, 대구이다.
○ 활용률이 전국 활용률보다 낮은 도시는 부산과 울산이다.
○ 1인당 조성면적이 1인당 결정면적의 50% 이하인 도시는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이다.

-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울산 | 광주 | 대전 | 인천 |
| ② | 울산 | 대전 | 광주 | 인천 |
| ③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④ | 인천 | 대전 | 광주 | 울산 |
| ⑤ | 인천 | 울산 | 광주 | 대전 |

문 23. 다음 <그림>과 <표>는 2014 ~ 2018년 A ~ C국의 GDP 및 조세 부담률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연도별 A ~ C국 GDP



<표> 연도별 A ~ C국 조세부담률

(단위: %)

연도	구분	A	B	C
2014	국세	24.1	16.4	11.4
	지방세	1.6	5.9	11.3
2015	국세	24.4	15.1	11.3
	지방세	1.6	6.0	11.6
2016	국세	24.8	15.1	11.2
	지방세	1.6	6.1	12.1
2017	국세	25.0	15.9	11.1
	지방세	1.6	6.2	12.0
2018	국세	25.0	15.6	11.4
	지방세	1.6	6.2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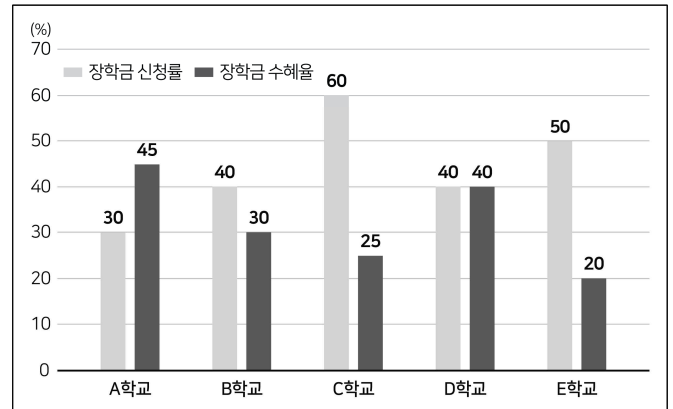
※ 1) 조세부담률 = 국세부담률 + 지방세부담률

$$2) \text{국세(지방세)부담률}(\%) = \frac{\text{국세(지방세) 납부액}}{\text{GDP}} \times 100$$

- ① 2016년에는 전년 대비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조세부담률도 가장 높다.
- ② B국은 GDP가 증가한 해에 조세부담률도 증가한다.
- ③ 2017년 지방세 납부액은 B국이 A국의 4배 이상이다.
- ④ 2018년 A국의 국세 납부액은 C국의 지방세 납부액보다 많다.
- ⑤ C국의 국세 납부액은 매년 증가한다.

문 24. 다음 <그림>은 A ~ E 학교의 장학금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해당 학교의 전체 학생 중 장학금 수혜자 비율이 가장 큰 학교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림> 학교별 장학금 신청률과 수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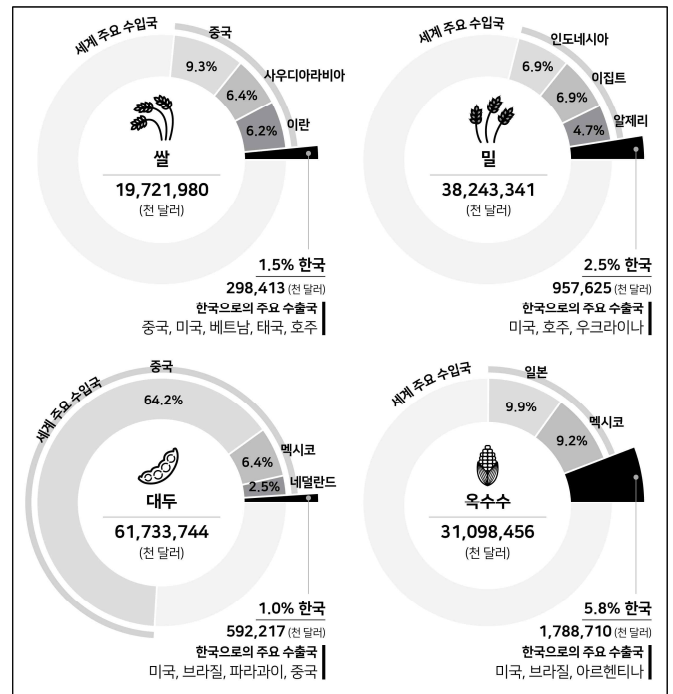
$$\ast 1) \text{장학금 신청률}(\%) = \frac{\text{장학금 신청자}}{\text{전체 학생}} \times 100$$

$$2) \text{장학금 수혜율}(\%) = \frac{\text{장학금 수혜자}}{\text{장학금 신청자}} \times 100$$

- ① A, B, D, E, C ② A, D, B, C, E
- ③ C, E, B, D, A ④ D, C, A, B, E
- ⑤ E, D, C, A, B

문 25. 다음 <그림>은 4대 곡물 세계 수입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4대 곡물의 세계 총수입액 및 주요 수입국 현황



※ '세계 주요 수입국'은 세계 곡물 시장에서 한국보다 해당 곡물의 수입액이 큰 국가임.

- ① 한국의 밀 수입액은 쌀 수입액의 3배 이상이다.
- ② 중국이 수입한 4대 곡물 총수입액은 세계 밀 총수입액보다 크다.
- ③ 브라질은 4대 곡물 중 2개에서 '한국으로의 주요 수출국'이다.
- ④ 4대 곡물을 한국의 수입액이 큰 곡물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옥수수, 밀, 대두, 쌀 순이다.
- ⑤ 이란의 쌀 수입액은 알제리의 밀 수입액보다 크다.

문 26. 다음 <표>는 국내 건축물 내진율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보기>의 그래프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국내 건축물 내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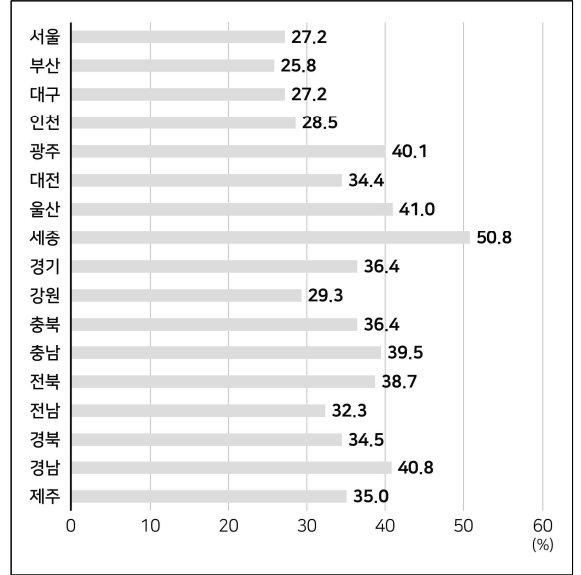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건축물			내진율
			전체	내진대상	내진확보	
계			6,986,913	1,439,547	475,335	33.0
지 역	서울		628,947	290,864	79,100	27.2
	부산		377,147	101,795	26,282	25.8
	대구		253,662	81,311	22,123	27.2
	인천		215,996	81,156	23,129	28.5
	광주		141,711	36,763	14,757	40.1
	대전		133,118	44,118	15,183	34.4
	울산		132,950	38,225	15,690	41.0
	세종		32,294	4,648	2,361	50.8
	경기		1,099,179	321,227	116,805	36.4
	강원		390,412	45,700	13,412	29.3
	충북		372,318	50,598	18,414	36.4
	충남		507,242	57,920	22,863	39.5
	전북		436,382	47,870	18,506	38.7
	전남		624,155	43,540	14,061	32.3
	경북		786,058	84,391	29,124	34.5
	경남		696,400	89,522	36,565	40.8
	제주		158,942	19,899	6,960	35.0
	용 도	주 택	소계	4,568,851	806,225	314,376
단독주택			4,168,793	445,236	143,204	32.2
공동주택			400,058	360,989	171,172	47.4
주 택 이 외		소계	2,418,062	633,322	160,959	25.4
		학교	46,324	31,638	7,336	23.2
		의료시설	6,260	5,079	2,575	50.7
		공공업무시설	42,077	15,003	2,663	17.7
		기타	2,323,401	581,602	148,385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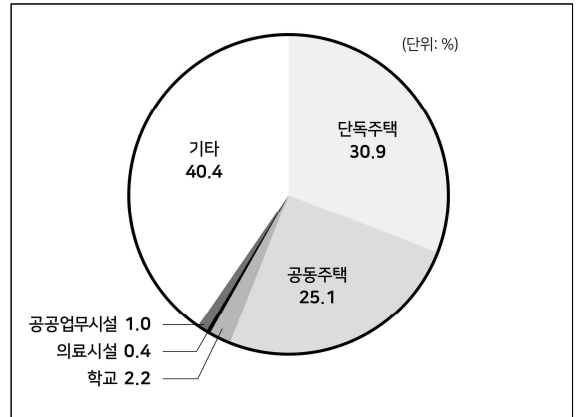
$$\text{※ 내진율(\%)} = \frac{\text{내진확보 건축물}}{\text{내진대상 건축물}} \times 100$$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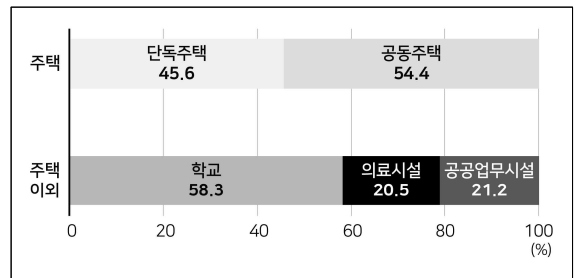
ㄱ. 지역별 내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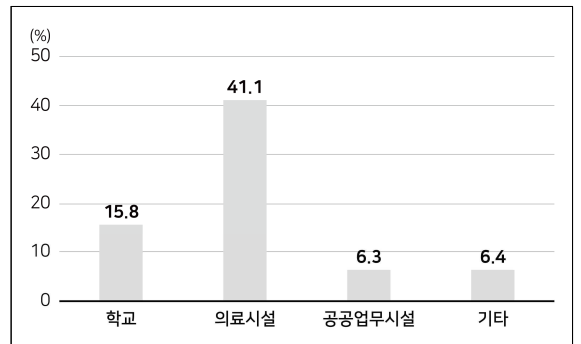
ㄴ. 용도별 내진대상 건축물 구성비



ㄷ. 주택 및 주택이외 건축물의 용도별 내진확보 건축물 구성비



ㄹ. 주택이외 건축물 용도별 내진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ㄷ

문 27. 다음 <표>는 12대 주요 산업별 총산업인력과 기술인력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표> 12대 주요 산업별 총산업인력과 기술인력 현황
(단위: 명, %)

부문	구분 산업	총산업 인력	기술인력			
			현원	비중	부족인원	부족률
제조	기계	287,860	153,681	53.4	4,097	()
	디스플레이	61,855	50,100	()	256	()
	반도체	178,734	92,873	()	1,528	1.6
	바이오	94,364	31,572	33.5	1,061	()
	섬유	131,485	36,197	()	927	2.5
	자동차	325,461	118,524	()	2,388	2.0
	전자	416,111	203,988	()	5,362	2.6
	조선	107,347	60,301	56.2	651	()
	철강	122,066	65,289	()	1,250	1.9
	화학	341,750	126,006	36.9	4,349	3.3
서비스	소프트웨어	234,940	139,454	()	6,205	()
	IT 비즈니스	111,049	23,120	20.8	405	()

※ 1) 기술인력 비중(%) = $\frac{\text{기술인력 현원}}{\text{총산업인력}} \times 100$

2) 기술인력 부족률(%)

= $\frac{\text{기술인력 부족인원}}{\text{기술인력 현원} + \text{기술인력 부족인원}} \times 100$

— <보 기> —

- ㄱ.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인력 비중은 80 % 미만이다.
 ㄴ. 기술인력 비중이 50 % 이상인 산업은 6개다.
 ㄷ.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인력 부족률은 5 % 미만이다.
 ㄹ. 기술인력 부족률이 두 번째로 낮은 산업은 반도체 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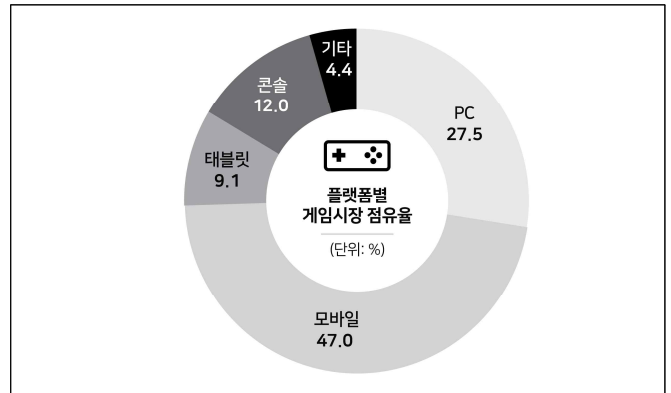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8. 다음 <표>와 <그림>은 A 국 게임시장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표> 2017 ~ 2020년 A 국의 플랫폼별 게임시장 규모
(단위: 억 원)

플랫폼	연도	2017	2018	2019	2020
PC		149	165	173	()
모바일		221	244	256	301
태블릿		56	63	66	58
콘솔		86	95	78	77
기타		51	55	40	28

<그림> 2020년 A 국의 플랫폼별 게임시장 점유율



※ 플랫폼별 게임시장 점유율(%)

= $\frac{\text{A 국 해당 플랫폼의 게임시장 규모}}{\text{A 국 게임시장 전체 규모}} \times 100$

— <보 기> —

- ㄱ. A 국 게임시장 전체 규모는 매년 증가하였다.
 ㄴ. 2020년 PC, 태블릿, 콘솔의 게임시장 규모의 합은 A 국 게임시장 전체 규모의 50 % 미만이다.
 ㄷ. PC의 게임시장 점유율은 2020년이 2019년보다 높다.
 ㄹ. 기타를 제외하고 2017년 대비 2018년 게임시장 규모 증가율이 가장 높은 플랫폼은 태블릿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9. 다음 <표>는 2015 ~ 2019년 A 국의 보유세 추이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 국의 보유세 추이
(단위: 십억 원)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보유세		5,030	6,838	9,196	9,856	8,722
재산세		2,588	3,123	3,755	4,411	4,423
도시계획세		1,352	1,602	1,883	2,183	2,259
공동시설세		446	516	543	588	591
종합부동산세		441	1,328	2,414	2,130	1,207
농어촌특별세		203	269	601	544	242

※ 보유세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로만 구성됨.

— <보 기> —

- ㄱ. '보유세'는 2017년이 2015년의 1.8배 이상이다.
 ㄴ. '보유세' 중 재산세 비중은 2017년까지는 매년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는 매년 증가하였다.
 ㄷ. 농어촌특별세는 '보유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가장 작다.
 ㄹ. 재산세 대비 종합부동산세 비는 가장 큰 연도가 가장 작은 연도의 4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다음 <표>는 2014 ~ 2019년 '갑'지역의 월별 기상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 30. ~ 문 31.]

<표 1> 2014 ~ 2019년 월별 평균기온

(단위: °C)

연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4	-45	14	43	95	172	234	258	265	218	145	65	-13
2015	-72	12	36	107	179	220	246	258	218	142	107	-09
2016	-28	-20	51	123	197	241	254	271	210	153	55	-41
2017	-34	-12	51	100	182	244	255	277	218	158	62	-02
2018	-07	19	79	140	189	231	261	252	221	156	90	-29
2019	-09	10	63	133	189	236	258	263	224	155	89	16

<표 2> 2014 ~ 2019년 월별 강수량

(단위: mm)

연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연강수량)
2014	6	55	83	63	124	128	239	599	672	26	11	16	2,022
2015	29	29	15	110	53	405	1,131	167	26	32	56	7	2,080
2016	9	1	47	157	8	92	449	455	212	99	68	41	1,648
2017	7	74	27	72	132	28	676	149	139	14	47	25	1,300
2018	22	16	7	31	63	98	208	173	88	52	42	18	818
2019	11	23	10	81	29	99	226	73	26	82	105	29	794

<표 3> 2014 ~ 2019년 월별 일조시간

(단위: 시간)

연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연일조시간)
2014	168	141	133	166	179	203	90	97	146	195	180	158	1,856
2015	219	167	240	202	180	171	80	94	180	215	130	196	2,074
2016	191	225	192	213	251	232	143	159	191	255	181	194	2,407
2017	168	187	256	213	238	224	101	218	191	250	188	184	2,418
2018	184	164	215	213	304	185	173	151	214	240	194	196	2,433
2019	193	180	271	216	290	258	176	207	232	240	109	178	2,580

문 30. 다음 <표 4>는 '갑'지역의 2020년 월별 기상 관측값의 전년 동월 대비 변화량을 나타낸 자료의 일부이다. 위 <표>와 아래 <표 4>를 근거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4> 2020년 기상 관측값의 전년 동월 대비 변화량

(단위: °C, mm, 시간)

관측항목 \ 월	1	2	3	4	5	6	7	8	9	10
평균기온	-23	-08	+07	+08	+07	0.0	+04	+17	+07	
강수량	-10	+25	+31	-4	+132	-45	+132	-6	+7	
일조시간	+3	+15	-17	+4	-10	-28	-16	+29	-70	

<보 기>

ㄱ. 8월 평균기온은 2020년이 가장 높다.

ㄴ. 2020년 7월 강수량은 2014 ~ 2019년 동안의 7월 평균 강수량보다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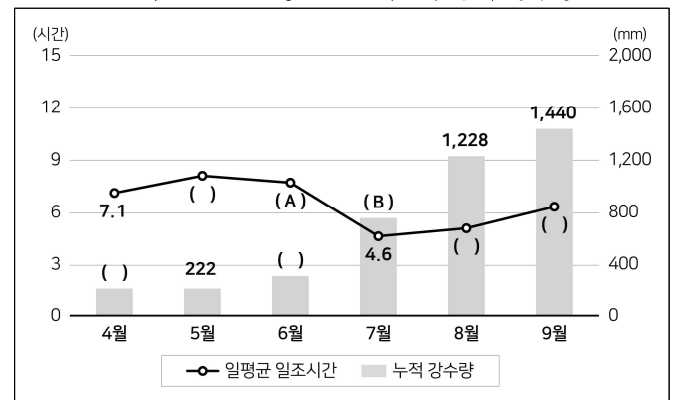
ㄷ. 연강수량은 2020년이 2019년보다 많다.

ㄹ. 여름(6~8월)의 일조시간은 2020년이 2019년보다 적으나 2018년보다는 많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31. 다음 <그림>은 2014 ~ 2019년 중 특정 연도의 '갑'지역 월별 일평균 일조시간과 누적 강수량에 대한 자료의 일부이다. 위 <표>와 아래 <그림>을 근거로 A, B에 해당하는 값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림> 월별 일평균 일조시간과 누적 강수량



※ 1) 일평균 일조시간은 해당 월 일조시간을 해당 월 날짜 수로 나눈 값임.

2) 누적 강수량은 해당 연도 1월부터 해당 월까지의 강수량을 누적한 값임.

A B

- ① 7.5 763
② 7.5 779
③ 7.5 794
④ 7.7 763
⑤ 7.7 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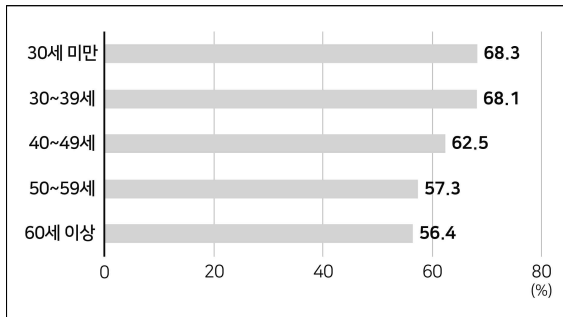
문 32. 다음 <표>는 2020년 A 지역의 가구주 연령대별 및 종사상지위별 가구 구성비와 가구당 자산 보유액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보기>의 그래프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가구 구성비 및 가구당 자산 보유액
(단위: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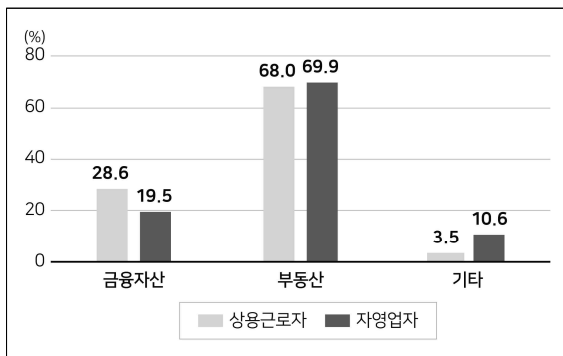
구분		자산 유형		전체	금융 자산	실물자산		
		가구 구성비				부동산	거주주택	기타
가구 전체			100.0	43,191	10,570	30,379	17,933	2,242
가구주 연령대	30세 미만	2.0	10,994	6,631	3,692	2,522	671	
	30 ~ 39세	12.5	32,638	10,707	19,897	13,558	2,034	
	40 ~ 49세	22.6	46,967	12,973	31,264	19,540	2,730	
	50 ~ 59세	25.2	49,346	12,643	33,798	19,354	2,905	
	60세 이상	37.7	42,025	7,912	32,454	18,288	1,659	
가구주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2.7	48,531	13,870	32,981	20,933	1,680	
	임시·일용근로자	12.4	19,498	4,987	13,848	9,649	663	
	자영업자	22.8	54,869	10,676	38,361	18,599	5,832	
	기타(무직 등)	22.1	34,179	7,229	26,432	16,112	518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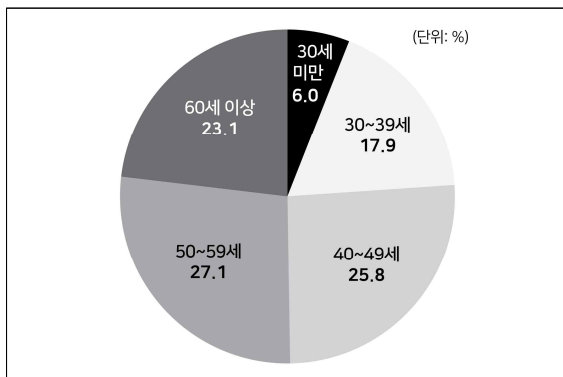
ㄱ. 가구주 연령대별 부동산 자산 중 거주주택 자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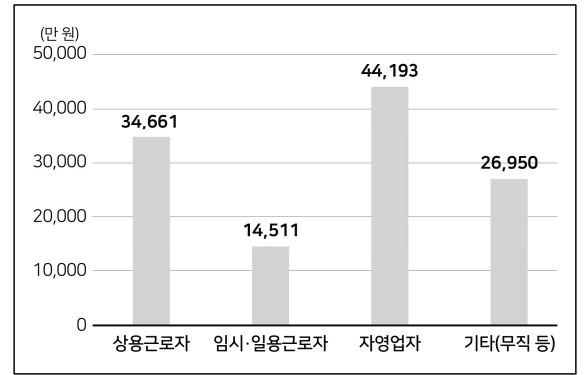
ㄴ.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자산 유형별 자산 보유액 구성비 비교



ㄷ. 전체 자산의 가구주 연령대별 구성비



ㄹ.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가구당 실물자산 규모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ㄹ

문 33. 다음 <표>는 2020년 ‘갑’시의 오염물질 배출원별 배출량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0년 오염물질 배출원별 배출량 현황
(단위: 톤, %)

오염물질 배출원	PM ₁₀		PM _{2.5}		CO		NO _x		SO _x		VOC	
구분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선박	1,925	61.5	1,771	64.0	2,126	58	24,994	45.9	17,923	61.6	689	1.6
화물차	330	10.6	304	11.0	2,828	7.7	7,427	13.6	3	0.0	645	1.5
건설장비	253	8.1	233	8.4	2,278	6.2	4,915	9.0	2	0.0	649	1.5
비산업	163	5.2	104	3.8	2,501	6.8	6,047	11.1	8,984	30.9	200	0.5
RV	134	4.3	123	4.5	1,694	4.6	1,292	2.4	1	0.0	138	0.3
계	2,805	()	2,535	()	11,427	()	44,675	()	26,913	()	2,321	()

※ 1) PM₁₀ 기준 배출량 상위 5개 오염물질 배출원을 선정하고, 6개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함.

$$2) \text{배출비중}(\%) = \frac{\text{해당 배출원의 배출량}}{\text{전체 배출원의 배출량}} \times 100$$

<보 기>

ㄱ. 오염물질 CO, NO_x, SO_x, VOC 배출량 합은 ‘화물차’가 ‘건설장비’보다 많다.

ㄴ. PM_{2.5} 기준 배출량 상위 5개 배출원의 PM_{2.5} 배출비중 합은 90% 이상이다.

ㄷ. NO_x의 전체 배출원 중에서 ‘건설장비’는 네 번째로 큰 배출비중을 차지한다.

ㄹ. PM₁₀의 전체 배출량은 VOC의 전체 배출량보다 많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34. 다음 <표>는 ‘갑’국의 2020년 5월, 6월 음원차트 상위 15위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20년 6월 음원차트 상위 15위 현황

순위	전월 대비 순위변동	음원	GA점수
1	—	()	147,391
2	()	알로에	134,098
3	()	미워하게 될 줄 알았어	127,995
4	신곡	LESS & LESS	117,935
5	▽ [2]	매우 화났어	100,507
6	신곡	Uptown Baby	98,506
7	신곡	땅 Official Remix	91,674
8	()	개와 고양이	80,927
9	▽ [2]	()	77,789
10	△ [100]	나에게 넌, 너에게 난	74,732
11	△ [5]	Whale	73,333
12	▽ [2]	()	68,435
13	△ [18]	No Memories	67,725
14	△ [3]	화려한 고백	67,374
15	▽ [10]	마무리	65,797

〈표 2〉 2020년 5월 음원차트 상위 15위 현황

순위	전월 대비 순위변동	음원	GA점수
1	신곡	세븐	203,934
2	▽ [1]	알로에	172,604
3	△ [83]	()	135,959
4	신곡	개와 고양이	126,306
5	▽ [3]	마무리	93,295
6	△ [4]	럼더덤	90,637
7	△ [6]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	88,775
8	▽ [5]	첫사랑	87,962
9	신곡	Sad	87,128
10	▽ [6]	흔들리는 풀잎 속에서	85,957
11	▽ [6]	아는 노래	78,320
12	—	Blue Moon	73,807
13	▽ [4]	METER	69,182
14	▽ [3]	OFF	68,592
15	신곡	미워하게 될 줄 알았어	66,487

※ 1) GA점수는 음원의 스트리밍, 다운로드, BGM 판매량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집계한 것으로 GA점수가 높을수록 순위가 높음.

2) - : 변동없음, Δ [] : 상승 [상승폭], ∇ [] : 하락 [하락폭],
 신곡: 해당 월 발매 신곡

-<보 기>-

- ㄱ. 2020년 4 ~ 6월 동안 매월 상위 15위에 포함된 음원은 모두 4곡이다.
- ㄴ. 'Whale'의 2020년 6월 GA점수는 전월에 비해 6,000 이상 증가하였다.
- ㄷ. 2020년 6월 음원차트 상위 15위 음원 중 6월 발매 신곡을 제외하고 전월 대비 순위 상승폭이 세 번째로 큰 음원의 GA점수는 전월 GA점수의 두 배 이상이다.
- ㄹ. 2020년 6월 음원차트 상위 15위 음원 중 6월 발매 신곡을 제외하고 전월 대비 순위가 상승한 음원은 전월 대비 순위가 하락한 음원보다 많다.

- ① $\neg$, $\perp$
 ② $\perp$, $\exists$
 ③ $\exists$, $\exists$
 ④ $\neg$, $\perp$, $\exists$
 ⑤ $\neg$, $\exists$, $\exists$

문 35. 다음 <표>는 A 시의 2016 ~ 2020년 버스 유형별 노선 수와 차량대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표〉 2016 ~ 2020년 버스 유형별 노선 수와 차량대수
(단위: 개, 대)

연도	유형 구분	간선버스		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환버스		심야버스	
		노선 수	차량 대수	노선 수	차량 대수	노선 수	차량 대수	노선 수	차량 대수	노선 수	차량 대수
2016		122	3,703	215	3,462	11	250	4	25	9	45
2017		121	3,690	214	3,473	11	250	4	25	8	47
2018		122	3,698	211	3,474	11	249	3	14	8	47
2019		122	3,687	207	3,403	10	247	3	14	9	70
2020		124	3,662	206	3,406	10	245	3	14	11	78

※ 버스 유형은 간선버스, 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환버스, 심야버스로만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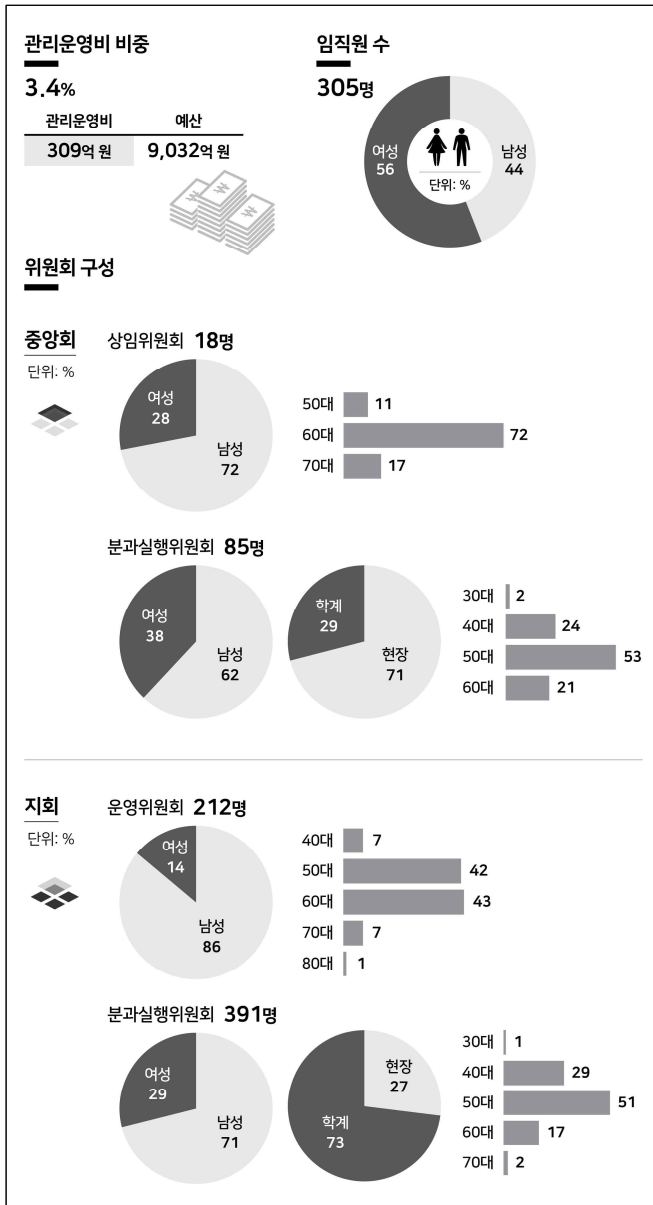
—〈보고서〉

㉠ 2017 ~ 2020년 A 시 버스 총노선 수와 총차량대수는 각각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 전년 대비 감소폭은 총노선 수와 총차량대수 모두 2019년이 가장 크다. 이는 A 시 버스 이용객의 감소와 버스 노후화로 인한 감차가 이루어져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 2019년 심야버스는 버스 유형 중 유일하게 전년에 비해 차량대수가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차량대수 증가율은 45%를 상회하였다. 이는 심야시간 버스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2016 ~ 2020년 동안 노선 수 대비 차량대수 비는 간선버스가 매년 가장 크다. 이는 간선버스가 차량운행거리가 길고 배차시간이 짧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 2016 ~ 2020년 동안 노선 수 대비 차량대수 비는 심야버스가 순환버스보다 매년 크다.

- ① $\neg, \perp, \sqsubset$ ② $\neg, \sqsubset, \sqsupset$
③ $\perp, \sqsubset, \sqsupset$ ④ $\perp, \sqsubset, \sqsupset$
⑤ $\sqsubset, \sqsupset, \sqsupset$

문 36. 다음 <그림>은 2020년 A 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2020년 A 기관의 조직 및 운영 현황



※ 중앙회는 상임위원회와 분과실행위원회로만 구성되고, 지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실행위원회로만 구성됨.

<보 기>

- ㄱ. 2020년 임직원당 관리운영비는 1억 원 이상이다.
 ㄴ. 분과실행위원회의 현장 위원 수는 중앙회가 지회보다 많다.
 ㄷ. 중앙회 상임위원회의 모든 여성 위원이 동시에 중앙회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이라면, 중앙회 여성 위원 수는 총 32명이다.
 ㄹ. 지회 분과실행위원회의 50대 학계 위원은 80명 이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문 37. 다음 <표>는 2015 ~ 2019년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및 조치 방법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별 현황

(단위: 명)

연도 발생원인	2015	2016	2017	2018	2019
학대	2,866	3,139	2,778	2,726	2,865
비행	360	314	227	231	473
가정불화	930	855	847	623	464
유기	321	264	261	320	237
미아	26	11	12	18	8
전체	()	()	()	()	4,047

※ 보호조치 아동 한 명당 발생원인은 1개임.

<표 2> 보호조치 아동의 조치방법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조치방법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설보호	2,682	2,887	2,421	2,449	2,739
가정위탁	1,582	1,447	1,417	1,294	1,199
입양	239	243	285	174	104
기타	0	6	2	1	5
전체	()	()	()	()	4,047

※ 보호조치 아동 한 명당 조치방법은 1개임.

<보 기>

- ㄱ. 매년 전체 보호조치 아동은 감소한다.
 ㄴ. 매년 전체 보호조치 아동 중 발생원인이 '가정불화'인 보호조치 아동의 비중은 10% 이상이다.
 ㄷ. 2019년 조치방법이 '시설보호'인 보호조치 아동 중 발생원인이 '학대'인 보호조치 아동의 비중은 50% 이상이다.
 ㄹ. 2016년 이후 조치방법이 '가정위탁'인 보호조치 아동의 전년 대비 감소율은 매년 10% 이하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38. 다음 <표>는 영재학생 역량에 대한 과학교사와 인문교사 두 집단의 인식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영재학생 역량별 요구수준 및 현재수준
(단위: 점)

역량	집단	과학교사			인문교사		
	구분	요구수준	현재수준	부족수준	요구수준	현재수준	부족수준
문해력		430	330	1.00	450	326	1.24
수리적 소양		437	400	0.37	443	388	0.55
과학적 소양		452	403	0.49	463	400	0.63
ICT 소양		433	359	0.74	452	368	0.84
경제적 소양		385	284	1.01	401	287	1.14
문화적 소양		426	284	1.42	446	304	1.42
비판적 사고		471	353	1.18	473	370	1.03
창의성		464	343	1.21	484	367	1.17
의사소통능력		468	342	1.26	471	365	1.06
협업능력	()		356	()	472	366	1.06
호기심		464	350	1.14	464	363	1.01
주도성		439	346	0.93	447	343	1.04
끈기		448	330	1.18	460	335	1.25
적응력		431	334	0.97	441	343	0.98
리더십		424	334	0.90	434	349	0.85
사회인식		432	305	1.27	448	324	1.24

※ 1) 부족수준 = 요구수준 - 현재수준

2)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역량의 요구(현재, 부족)수준이 높음.

<표 2> 교사집단별 영재학생 역량 우선지수 순위

순위	집단 구분	과학교사		인문교사	
		역량	우선지수	역량	우선지수
1		문화적 소양	6.05	문화적 소양	6.33
2	()	()	()	()	()
3	()	()	창의성	창의성	5.66
4	비판적 사고	5.56	문해력	문해력	5.58
5	사회인식	5.49	사회인식	사회인식	5.56
6	호기심	5.29	()	()	()
7	끈기	5.29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	4.99
8	협업능력	5.24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	4.87
9	문해력	4.30	호기심	호기심	4.69
10	적응력	4.18	주도성	주도성	4.65
11	주도성	4.08	경제적 소양	경제적 소양	4.57
12	()	()	()	()	()
13	리더십	3.82	()	()	()
14	()	()	리더십	리더십	3.69
15	()	()	()	()	()
16	()	()	()	()	()

※ 우선지수 = 요구수준 × 부족수준

- ① ‘끈기’에 대한 우선지수는 과학교사 집단이 인문교사 집단보다 높다.
- ② 각 교사집단에서 우선지수가 가장 낮은 역량은 모두 ‘수리적 소양’이다.
- ③ 두 교사집단 간 부족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역량은 ‘경제적 소양’이다.
- ④ 각 교사집단이 인식하는 요구수준 상위 5개에 속한 역량은 다르다.
- ⑤ 각 교사집단이 인식하는 요구수준 하위 3개에 속한 역량은 같다.

문 39. 다음 <표>는 S 시 공공기관 의자 설치 사업에 참여한 ‘갑’ ~ ‘무’ 기업의 소요비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기업별 의자 설치 소요비용 산출근거

기업	의자 제작비용 (천 원/개)	배송거리 (km)	배송차량당 배송비용 (천 원/km)		배송차량의 최대 배송량 (개/대)
			배송업체 A	배송업체 B	
갑	300	120	1.0	1.2	30
을	250	110	1.1	0.9	50
병	320	130	0.7	0.9	70
정	400	80	0.8	1.0	40
무	270	150	0.5	0.3	25

※ 1) 소요비용 = 제작비용 + 배송비용

2) ‘갑’ ~ ‘무’ 기업은 배송에 필요한 최소대수의 배송차량을 사용함.

<보 기>

- 가. 배송업체 A를 이용하여 의자 500개를 설치할 때, 소요비용이 가장 적은 기업은 ‘을’이다.
- 나. 배송업체 A를 이용하여 의자 300개를 설치할 때, 소요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기업이 있다.
- 다. 배송업체 B를 이용하여 의자 300개를 설치할 때, 소요비용이 가장 적은 기업은 ‘무’이다.
- 르. 배송업체 B를 이용하여 의자 590개를 설치할 때, 소요비용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기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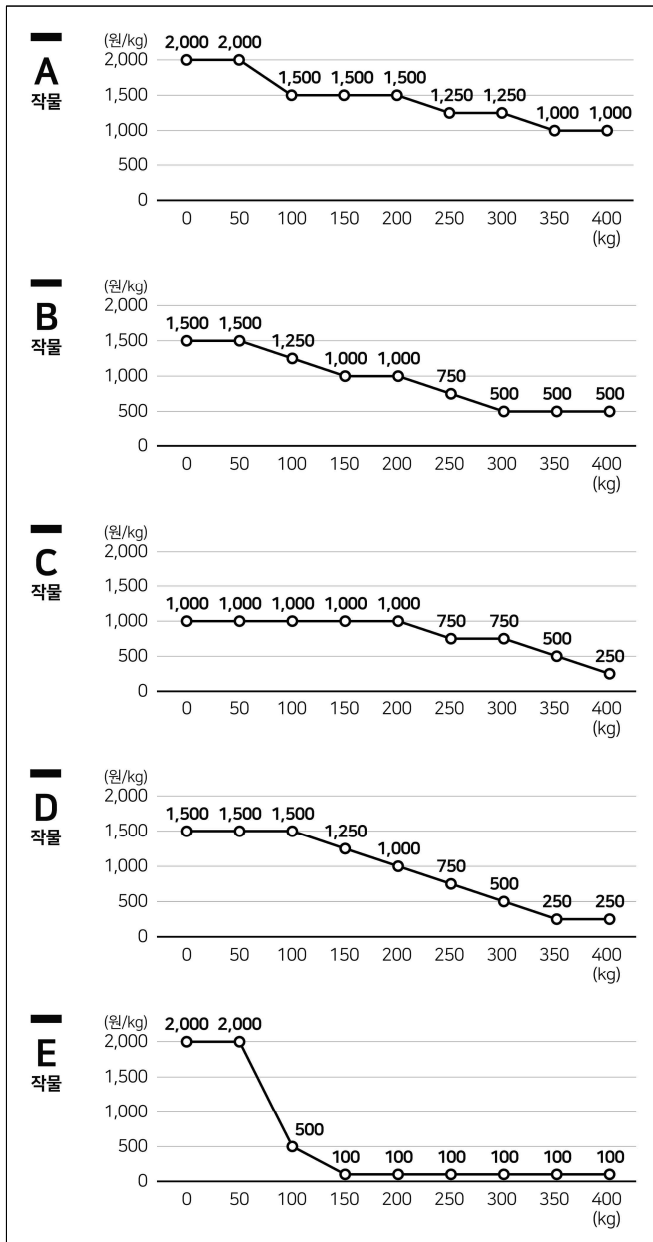
- ① 가, 나
- ② 가, 르
- ③ 나, 다
- ④ 가, 나, 르
- ⑤ 나, 다, 르

문 40. 다음 <조건>, <그림>과 <표>는 2015 ~ 2019년 ‘갑’지역의 작물재배와 생산, 판매가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 건>—

- ‘갑’지역의 전체 농민은 ‘가’, ‘나’, ‘다’ 3명뿐이다.
- 각 농민은 1,000 m² 규모의 경작지 2곳만을 가지고 있다.
- 한 경작지에는 한 해에 하나의 작물만 재배한다.
- 각 작물의 ‘경작지당 연간 최대 생산량’은 A는 100 kg, B는 200 kg, C는 100 kg, D는 200 kg, E는 50 kg이다.
- 생산된 작물은 해당 연도에 모두 판매된다.
- 각 작물의 판매가격은 해당 연도의 ‘갑’지역 작물별 연간 총생산량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A ~ E 작물별 ‘갑’지역 연간 총생산량에 따른 판매가격



<표> 2015 ~ 2019년 경작지별 재배작물 종류 및 생산량 (단위: kg)

농민	경작지	2015		2016		2017		2018		2019	
		작물	생산량	작물	생산량	작물	생산량	작물	생산량	작물	생산량
가	경작지1	A	100	A	50	A	25	B	100	A	100
	경작지2	A	100	B	100	D	200	B	100	B	50
나	경작지3	B	100	B	50	C	100	C	50	D	200
	경작지4	C	100	A	100	D	200	E	50	E	50
다	경작지5	D	200	D	200	C	50	D	200	D	200
	경작지6	E	50	E	50	E	50	E	50	E	50

- ① 동일 경작지에서 동일 작물을 다년간 연속 재배하였을 때, 전년 대비 생산량 감소를 보인 작물은 A, B, C이다.
- ② 2016년 농민 ‘가’의 작물 총판매액은 225,000원이다.
- ③ E 작물은 동일 경작지에서 다년간 연속 재배해도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았다.
- ④ 동일 경작지에서 A 작물을 3개년 연속 재배하고 B 작물을 재배한 후 다시 A 작물을 재배한 해에는 A 작물이 ‘경작지당 연간 최대 생산량’만큼 생산되었다.
- ⑤ 2016년과 2019년의 작물 판매가격 차이는 D 작물이 E 작물보다 작다.